

고교 무상급식 확대 불발에 학부모 거센 반발

군산시에 예산 18억 편성 촉구

광주시 예산지원 거부 논란

김제·남원·익산은 내년 시행

고교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의 예산 지원 거부로 내년부터 고교 3학년 뿐 아니라 2학년생까지 확대·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좌절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군산에서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남원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산지역 학부모로 구성된 군산교교의 무급식운동본부는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고교 의무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북지역 8개 초·중·고교생이 무상급식을 받고 김제·남



군산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익산시도 내년도 의무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군산시와 전주만 남게 된다”고 군산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군산지역 학생 6297명이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교 의무급식을 위해 내년도 예산 18억원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 5개교 도시 고교 의무급식 남원시 운동본부’는 지난 6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시내 7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한 바 있다. 남원시는 이후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병설유치원, 초·중, 농촌교 2개교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지원을 내년부터 시내 7개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의 경우 고교 3학년에 이어 고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고 2학생들에 대한 광주지교육청의 예산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광주지교육청은 올 해 자체 예산 106억원으로 153개 초등학교와 91개 중학교, 광주지역 일반계고 3학년(중식)·특성화고 학생들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고교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종행기자 gilee@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남원=백성기자 bs8787@

군산항~선유도 연말까지 운항 중단

이용객 급감해 적자

주민 생활 불편 우려

군산항과 선유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섬 연결도로 개통으로 탑승객이 급감해 연말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해 주민들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유도를 하루 2차례 운항하는 옥도훼리호(정원 253명)가 선사 경영악화와 선박 수리를 이유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옥도훼리호는 지난해 7월 섬 연결도

로가 부분개통한 후 섬 주민과 관광객이 육상으로 이동하면서 탑승객이 급감했고, 특히 올여름 휴가철 이후는 하루 10명조차 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사 측은 “적자 폭이 큰데다 노후한 선박의 응급 수리가 필요하다”며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선유도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옥도훼리호 탑승객은 2014년 11만 2000여명, 2015년 10만7000여명, 2016년 7만7000명으로 점차 줄더니 올해는 11월 현재 1만6600명에 머물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광양시, 대만 타이중과 우호도시 협약

항만·교육·관광 교류 확대

광양시는 대만 타이중(臺中)시와 우호도시 협약(사진)을 맺고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14일 대만 타이중시청 회의실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경제 무역 교류와 투자 확대 ▲항만물류, 교육청소년, 농업, 관광 등 분야별 교류 협력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만 타이중시는 인구 270만 규모의 광역급 지방정부로 지난 2010년 12월 타이중현과 합병했고 항만물류, 식품가공, 화공, 정밀기계 등이 발달한 도시다.

광양시는 타이중 항만이 위치한 점을 들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양 시가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우호도시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목포시, 선원 안전 비상훈련장 조성

133억원 투입 2020년 완공

서해권 선원의 안전교육을 맡을 ‘종합 안전 비상훈련장’이 목포에 들어선다.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서해권 종합안전 비상훈련장’ 건립을 위한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했다.

종합안전 비상훈련장은 선원 재교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운

영하는 교육시설이다.

훈련장은 해양안전 교육장, 소화 훈련장, 교육 행정동 등으로 구성된다.

대지 1만8000㎡, 건물 연면적 3500여㎡ 규모로 국비 133억원을 들여 연말 착공, 2020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 재교육 면제제도 폐지로 선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했지만, 종합안전 비상훈련장이 부산에만 있어 서해권 선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곡성 몽어공원에서 소원 물고기 달아오

곡성군이 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성여행 팸투어’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조리과학교 학생 70여명이 14일 가정역 인근 몽어공원에서 물고기 모양 나무에 소원을 적어 매달고 있다.

곡성군이 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성여행 팸투어’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조리과학교 학생 70여명이 14일 가정역 인근 몽어공원에서 물고기 모양 나무에 소원을 적어 매달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익산시 내일 ‘근대 농업의 역사 고찰’ 학술대회

지역농업 발전 방안 모색

익산 농업 역사를 돌아보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원광대 프라이밍인 문학진흥사업단은 오는 16일 대학 60주년 기념관에서 익산 농업의 역사를 고찰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학자, 농업전문가, 언론인 등이 2부에 걸쳐 ‘익산의 농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한다.

1부에서는 ‘근대 익산농업의 형성과 일본인’을 주제로 근대 익산의 사회구조와 변동과정, 일제강점기 익산지역 자본가 네트워크 형성, 익산 대장촌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근대 익산농업의 구조와 변화’를 주제로 익산 농촌 사회와 동양적식주식회사, 식민지 지역사회 익산, 익산의 농업환경과 농민운동 등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